

노년기의 성격발달

김 남 순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본인이 1989년 8월부터 1990년 8월까지 1년간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의 연구교수로 있는 동안, 적극적인 태도로 생애 대면하여 자신과 가정생활은 물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생애를 향유하고 있는 미국의 노인들을 보고, 이에 부응한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관심에 의해 이루어진 노화와 그 성격발달에 관한 문헌연구이다.

먼저 증가하고 있는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학계의 노인발달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하여, 노화와 노화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노년학의 개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여 인간의 발달심리학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발달경향과 1920~30년대를 시발점으로 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노년기의 성격발달은 Jung의 정신분석적 전망, Erikson의 사회심리적 이론, Butler의 노년기 성격역동 이론, Peck과 Levinson의 성인성격 이론을 분석해 보았다.

노화(aging)는 복잡적이고 매력적인 과정이며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노화현상은 생리·정서·인지·경제·대인관계등 많은 측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복잡적이며, 이러한 변화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력적이다. 또한 노화 문제는 우리가 급속하게 노화되어가는 사회속에 살기 때문에 대중매체, 정치가들 그리고 일반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노화하는 개인내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의한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게 된다(Hooyman & Kiyak, 1988).

노화와 노화과정을 연구하는 노년학자들은 오늘날의 70대 노인들 대부분이 10년이나 20년전 50대 노인들이 했던 것 처럼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을 관

찰한다(Horn & Meer, 1987). '젊은 노년'(young-old)이란 새로운 영역은 생활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노인들에 해당되며, 그들은 활기차고 정력적이며 활동적이다. 반면에 '늙은 노인'(old-old)은 약하고 쇠약한 소수의 노인들을 언급한다(Neugarten & Neugarten, 1987).

노인세대는 더 젊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아지고 있다(그림1. 참조).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이 집단이 85세와 그 이상의 사람들이며, 그들은 이제 인구의 1%이상의 수이다(AARP, 1986; U.S. Bureau of the Census, 1983).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은 동양에서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윤종주(1983)의 최근 연구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그림2. 참조). 그림2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신생아

의 출생률 저하로 말미암아 저연령층이 감소하고 중년층이 증가하며, 서기 2000년대의 예상형태는 어린이보다 성인의 수가 더 많아진다. 또한 맨 꼭대기의 65세 이상의 비율도 현저히 늘어나게 되므로 연령구조에 의한 인구모형은 원통형으로 변형되어 갈 것이다(윤진, 1985). 이와같은 인구의 노령화에는 두가지의 기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중반의 비교적 높은 출생률과 20세기의 높은 이민율이 연합하여 65세 이상의 인구를 증가시켰고, 둘째는 의학적 진보가 평균수명을 연장하고 있다(Papalia & Olds, 1989).

이와같은 노인문화의 배경에 의한 국내의 학계의 노인발달 연구에 대한 관심을 기초로 하여 노화와 그 성격발달을 다루어 봄으로써 학문적 측면에서는 생애발달 심리학의 개척분야인 성인발달 조망에 작은 원리가 되고자 하며, 실용적 측면에서는 사회의 노인복지 및 개인의 안녕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 접근하는 연구문제는 첫째, 노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며 둘째, 노년기의 성격발달에 관해서는 어떤 이론이 있는가를 고찰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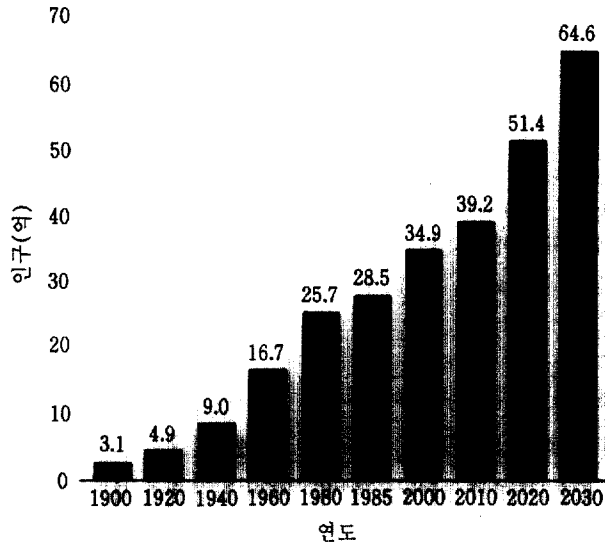


그림2. 우리나라 연령구조의 변화(1960, 1975 및 2000년) (윤 종주,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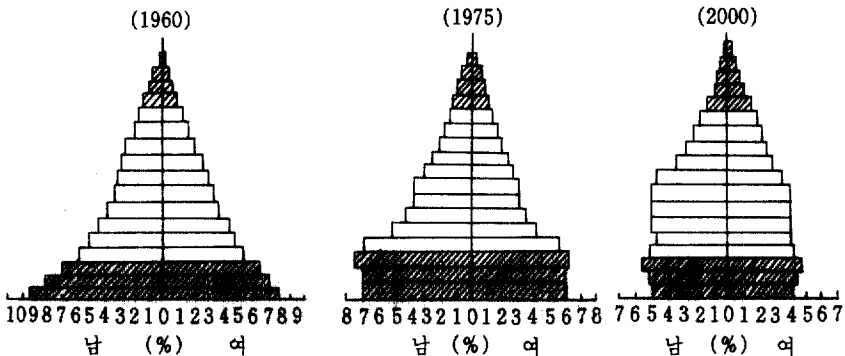


그림2. 우리나라 연령구조의 변화(1960, 1975 및 2000년) (윤 종주, 1983)

연구방법

이 연구의 방법으로는 노년기, 노년학, 노인의 성격문제를 다룬 참고문헌·전문지·연구논문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고찰하여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문헌연구이다.

노화

이 장에서는 노화를 연구하는 노년학의 일반적 개념 및 그 연구의 발달과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노년학의 개념

노화와 노화과정의 연구는 노년학으로 알려져 있다. 노년학(gerontology)은 광범위한 학문으로 노화의 생물적·심리적·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리고 노년학이란 의미의 gerontology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의 '노년'이라는 의미의 'geras'와 '연구'라는 의미의 'logos'로 부터 유래한다. 비록 노년학이 최신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발달심리학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하위분야이며, 또한 사회노년학(social gerontology)이나 노인병학(geriatrics)과 같은 밀접한 하위분야가 있다. Robert Butler (1983)는 노년학을 건전한 노화에 관한 미개척 영역과 병리적 노화에 관한 불확실한 영역으로 분류함으로써 다학문적이면서도 파생적인 양면으로의 접근으로 간주한다(Hooyman & Kiyak, 1988).

2. 연구의 발달

이 노년학의 과학적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원은 노화과정에 관한 생물적 연구와 인간의 발달심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노화에 관한 첫번째 저서는 13세기에 Roger Bacon에 의해 쓰여진 '인생과 죽음의 역사'(the history of life and death)였으며, 발달과정으로써 노화를 설명한 첫번째 과학자는 19세기 벨기에의 Adolph Quetelet였다. 그의 관심은 나이와 창조적 성취에 관한 문제였는데 100년 동안의 사회과학자들에 관한 횡단적 연구였다(Elias, Elias, & Elias, 1977).

그리고 19세기 후반의 S.P.Botkin이란 소련의 과학자는 정상적인 노화와 병리적인 노화의 차이에 관한 가장 초기의 자료를 제공했다(Birren & Clayton, 1975). 노화에 관한 첫번째 실험실 연구는 Ivan Pavlov라는 또 다른 Russia의 생리학자와 그의 연구원들에 의해 1920년대에 시도되었다. Pavlov는 반응이 학습되고 소멸되는 능력이 동물의 나이에 의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차이에 관한 이유를 동물들의 뇌를 중심으로 탐구했다(Birren, 1961). 미국에서는 심리학자인 G. Stanley Hall이 1922년에 노화의 사회심리적 측면에 관한 저서인 '노년기: 인생의 후반기'(Senescence, the last half of life)를 처음으로 출판했는데 노년학의 고전으로서 그 원문이 남아 있다(Papalia & Olds, 1989).

3. 최근의 연구동향

최근의 연구동향은 1920~30년대를 시발점으로 하여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노화과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커져 갔으며, 2차 대전이 끝난 후 전반적인 의학연구의 활성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노년학 연구는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1945년에는 노년학과 노인병학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개업의사등이 모여서 노년학회(The Gerontological Society)란 작은 조직이 만들어 졌는데 현재

생물학 및 의학, 심리학 및 사회과학, 사회복지의 실제 및 정책 등 3분야에서 6천명이상의 회원을 수용하는 미국 노년학회(The Gerontological Society of America)로 발전하여 노화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전문적 조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노년학은 1945년에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의, 조금 뒤에 미국 사회학회(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의 한 분야가 되었다. 또한 1946년 미국 국립 보건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서 하나의 연구팀으로 시작한 노년학 연구는 1974년 국립 노년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n Aging)로 독립하였다. 역시 1946년에 출판되기 시작한 노년학 전문지(The Journal of Gerontology)는 이 성장하는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첫번째의 수단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그 외 표1에 예시되어 있는 많은 노년학관계 전문지들이 노화연구와 노인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에 기여하고 있다. 1950년 벨기에의 리에지(Liege)시에서 조직된 국제노년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rontology)는 국제 노년학 대회(International Cong-

ress of Gerontology)를 매 4년마다 개최하며 한국도 1981년에 가입하였고 현재 전 세계에서 3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Hooyman & Kiyak, 1988).

한편 한국에서의 노화과정 및 노인문제 연구동향은 최근에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1978년에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연 1~2회의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의학·심리학·사회학·가정학·사회복지학·사회정책 및 노인교육 담당자 등이 주축이 되어 1980년부터 매년 1회씩 전문학술지 「한국노년학」을 간행하고 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으며 연이어 「경로현장」이 공포되었다. 또한 1982년은 UN이 선포한 「세계 노인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Elderly)로서 이에대한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국내행사가 이루어 졌는데, 우선 아산 사회사업재단은 1982년에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현대사회와 노인복지」(1983)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였으며 1984년에는 역시 「산업사회와 청년」이란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한편의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에서는 1981년에 시도한 조사결과를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1984)라는 단행본으로 출간하였으며

표1. 노년학에 기여한 대표적 잡지들

-
- 노화와 인간발달 국제잡지(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 노화와 사회(Aging and Society)
 - 실험적 노화연구(Experimental Aging Research)
 - 노인병학(Geriatrics)
 - 노년학자(The Gerontologist)
 - 노인학(Gerontology)
 - 노인학과 노인병학 교육(Gerontology and Geriatrics Education)
 - 미국 노인병학 잡지(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 노년학잡지(Journal of Gerontology)
 - 노인간호잡지(Journal of Geriatric Nursing)
 - 노인정신의학잡지(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 노인사회사업잡지(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 노화연구(Research on Aging)
 - 심리학과 노화(Psychology and Aging)
-

1982년에는 한국 인구보건 연구원이 「백가족화와 노년복지」(1982)를 주제로 학술모임을 개최하고 그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는 「사회교육」의 특정분야로서 「노인문제와 노인교육」(1984)이란 주제로 학술모임을 개최하고 그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국내학자들에 의한 노화과정과 노인문제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국내 박사학위논문으로서 최신태(1975), 현두일(1975), 한창영(1979), 김계삼(1982), 김태현(1982)등의 연구가 있고 단행본의 저술로는 김상규(1976)의 「노인복지의 체계적 연구」, 김성순(1979)의 「노인복지론」, 박계간(1979)의 「노인문제와 대책」, 김인자(1984)의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등이 있다. 심리학 및 사회학적 연구로는 김동일(1980)의 「농촌노인의 사회심리적 특성」, 윤종주(1980, 1982등)의 노령인구의 추세와 가족형태등을 주제로 한 연구, 윤진과 조석미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1980)와 「노화사실 인지척도의 구성」(1982)등의 연구가 있다(윤진, 1985).

노년기의 성격발달

이 장에서는 노년기의 성격발달을 설명하는 몇가지 이론을 살펴 보기로 하는데 고전적인 Carl Jung(1933, 1959)의 정신분석적 전망으로부터 시작하여 Erik Erikson(1963, 1982)의 사회심리적 이론, 노년학자인 Robert Butler(1968; Butler & Lewis, 1981)의 노년기 성격역동이론, Robert Peck(1968)과 Daniel Levinson(1978, 1980)의 성인 성격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해 보기로 한다.

1. Jung의 정신분석적 전망

Jung의 모델은 어린이의 좁은 시각에서 노인의

내세까지 의식과 자아발달의 단계를 강조한다. 그러나 성격발달이 항상 성숙과 지혜가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인의 생은 자연스럽게 수축되어야 하고 또한 내적 탐색과 내세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노인들은 자신을 위해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Jung은 “태양은 빛으로 세상을 충분히 밝힌 후에 스스로를 비추기 위해 그 빛을 철회한다.”(Jung, 1933, p. 109)고 언급하고 또한 나이에 의한 원형(archetypes)의 변화에 관심을 가졌다. 즉 모든 인간들은 양성적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데, 원형은 남성성격의 여성적 측면(anima)과 여성성격의 남성적 측면(animus)으로, 생물적·사회적 조건화에 의해 생성된다(Jung, 1959). 노화된으로써 사람들은 반대되는 성과 비슷한 심리적 특질을 가지게 되는데 여자들은 더 능동적으로 되는 반면 남자들은 더욱 수동적으로 되어 갈 것이다(Hooyman & Kiyak, 1988).

2. Erikson의 심리사회적 이론

Erikson은 노년기의 조화로운 성격발달의 핵심이 자아통합 대 절망(ego integrity versus despair)이란 심리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시사했다.

노인들은 생의 여덟번째인 마지막 위기속에서 접근하는 죽음을 수용하기 위해 자신의 생을 수용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자아통합은 성격의 충분한 통일성을 의미하며 자신의 생을 만족으로 고찰 할 수 있게 한다. 통합과제에 성공한 사람은 더 큰 사회적 질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질서감을 획득한다. 자아통합의 결핍은 흔히 죽음의 공포와 생이 너무 짧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생을 시작하거나 통합을 위한 대안을 시도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생을 후회와 실

망으로 고찰하여 절망한다. 그러므로 이 단계를 통해 발달하는 덕(virtue)은 죽음에 직면한 생에 대한 '사려깊고 분별력있는 관심'인 지혜이다(Erikson, 1985, p. 61). 그래서 이 위기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통합이 절망을 능가해야 한다. 그리하여 통합 대 절망의 단계는 노년기의 성격발달의 사회적 관련성뿐 아니라 심리적 관련성도 가진다. 한편 노년기는 역시 오락의 시기이고 어린이같은 성질을 되찾는 시기이며 그런 것은 창조성에 본질적인 것이다. 비록 출산의 시기가 끝났다 할지라도 창조는 여전히 가능할 것이다. 비록 몸의 기능이 약화되고 성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풍부한 신체적 정신적 경험'을 즐길 수 있다.(Erikson, 1985, p. 64.)

3. Butler의 생의 회고 이론

많은 노인들은 죽음이 가까와 짐으로써 과거에 관해 추억한다. Butler는 생의 회고(life review)로서 이 단계에 대해 언급하고 또한 죽음에 의한 조망에서 생을 회고하는 과정으로 이 단계를 묘사했다. 이 과정은 개인이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며 지속적인 갈등을 처리하게 한다. 생의 회고의 시기에 대한 개념은 Erikson의 통합 대 절망에 의한 심리사회적 단계와 매우 비슷하다. 그것은 지혜와 평정과 평화에 의해 절정에 이르거나 혹은 우울과 죄와 분노를 생성할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지나간 생을 회고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고립,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실, 죽음의 접근 등에서 노인들은 흔히 과거로 도피한다. 어떤 기억들은 향수를, 또는 약간의 후회나 절망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노인들의 과거에 대한 몰입은 낭패, 공포, 혹은 극단적인 경우는 자살까지도 일으킬 것이다. 요컨대 이 사고들은 간헐적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분출될 것이다. 생의 회고는

실제로 꿈과 사고에 의해 증명된다. 노인들은 흔히 과거와 죽음에 관한 꿈이라든지 악몽을 보고한다.

그러므로 생의 회고는 전반적인 성격발달에 중요한 단계이다. Butler는 기억은 우리에게 정체감을 주고 그리고 연속성과 지혜를 갖게 한다고 주장한다. 회상의 행동은 현재의 인식을 갱신하고 우리의 경이감을 회복시킨다. 생의 회고를 함으로써 개인은 과거를 회고하여 숙고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인생 경험에 새로운 통찰을 성취할 수 있다(Turner, J.S. & Helms, D.B., 1987).

4. Peck의 세가지 위기 이론

노년기의 성격발달에 관한 Erikson의 논의를 확대하여, Peck(1968)은 노인들의 건전한 성격발달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세가지 위기를 강조했는데 이 위기의 성공적 해결은 일, 신체적 안녕, 자기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통한 실존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 진다고 했다.

이 세가지 위기는 다음과 같다.

1) 자아변별 대 역할몰입(ego differentiation versus work-role preoccupation) Peck이 자아변별 대 일과 역할에의 몰입으로 부르는 이 위기의 쟁점은 사람이 하는 일에 의해 정의되는 정도이다. 사람들은 "나는 정상적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혹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Neugarten, 1968, p. 90에서 인용한 Peck, 1955)라고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특히 은퇴에 의해 일의 역할을 초월하여 인간으로서 그들의 가치를 재정의할 필요를 느낀다. 어떤 개인적인 자랑스러운 특질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생명력과 자신감을 유지하는데 더 성공적이다. 그러므로 직업의 상실에 적응해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탐색하고 이전의

인생에 방향과 구조를 주던 직업에 대신하는 다른 관심사들을 찾아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들은 그들의 자아가 직장의 역할에서 보다 더 풍부하고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2) 신체초월 대 신체몰입(body transcendence versus body preoccupation)

일반적으로 노화에 의해 초래되는 신체적 쇠퇴은 두번째 위기의 징후가 된다. 한 개인이 신체적 조건에 관한 관심을 극복하고 다른 보상적 만족을 찾는 것을 Peck은 신체초월대 신체몰입이라 한다. 행복한 생의 기초로서 신체적 안녕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이 감소하는데 대해 고통을 느끼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인간관계에 집중할 수 있고, 또한 완벽한 건강에 의존하지 않는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신체적 불편을 극복할 수 있다. 비록 노년기를 통해 힘·미·그의 다른 신체적 안녕과 같은 속성이 감퇴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인생의 목표는 이 시기를 통해 증가할 수 있는 능력인 정신적·사회적 힘을 배양하는 것이다.

3) 자아초월대 자아몰입(ego transcendence versus ego preoccupation)

아마도 노인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는 현재의 자신과 생에 대한 관심을 능가하여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다. Peck은 이러한 위기를 자아초월 대 자아몰입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죽음에의 조망에 대한 성공적 적응은 노년기의 가장 어려운 성취일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나? 이제까지 생을 통해 성취해 온 그들의 성숙한 자녀들, 문화적 업적들, 개인적 관계들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성취를 계속하는 생을 살아감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녕이나 행복에 공헌함으로써 자아를 초월하며, Peck은 그것을 동물적

생활로부터 인간적 생활로 구분지어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Peck, 1968).

5. Levinson의 인생계절론

Levinson은 성인초기나 중기와 비슷하게 노년기를 처음에는 과도기로 특징지음으로써 이론화했다. 그리하여 성인후기 과도기는 60세와 65세 사이로 간주하고 Peck처럼 신체적 변화와 성격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Levinson은 이 시기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죽음과 심각한 병의 빈도가 증가할 뿐 아니라 능력이 감퇴된다는 것을 시사했다. 즉 내면의 젊음과 같은 생장력이 사라짐으로써 에너지, 관심(흥미), 내적 자원이 결핍된 건조한 성격구조의 노인은 짧고 어리석은 노년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젊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한 창조적이고 현명한 연장자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과제는 성인후기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 속에서 그들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인후기 이전의 생의 방식을 끝내거나, 수정해야 한다(Levinson, 1978, p. 35).

성인후기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그들세계의 중심단계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족내에서 조부모세대의 역할로서 성장하는 자손들을 도울 수 있고 이해와 지지의 원천으로써 봉사한다.

은퇴는 또 다른 중요한 발달적 도전이다. 은퇴의 나이가 어떻든, 이 사건은 개인의 욕구·능력 그리고 생의 상황을 반영할 것이다. 은퇴 후에도 개인은 가치있는 일에 종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외적 압력과 경제적 요구에서가 아니고 창조적 에너지로부터 근거할 것이다. 사람들은 생애주기의 끝인 죽음의 과정에 직면하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앞의 단계에서는 생의 새로운 기원과 근거에 의한 출발을 기대했던 반면에, 이제 그들은 죽음이 절박

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반적인 인생과 죽음에 대해, 그리고 특별히 그들 자신의 인생과 죽음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주는데서 발달한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한 사회생활에서의 계약은 계속 될 것이다. 그들은 지혜와 통합의 모델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단계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자신에의 궁극적인 관계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특별히 자아를 잘 알고 사려 깊게 사랑하며, 그래서 마침내 자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Turner & Helms, 1983).

논의

이 연구는 노령인구의 증가추세에 의한 노인발달 연구에 대한 국내외 학계의 관심을 배경으로, 이론적 정립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노화과정을 기초로 한 노년기의 성격발달을 다루어 봄으로서 성인발달 조망에 작은 원리가 되고자 하며, 사회의 노인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함이 목적이다. 실제로 접근하는 연구문제는 첫째, 노화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정립을 시도하며 둘째, 노년기의 성격발달에 관한 이론적 근거에 접근해 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된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화를 연구하는 노년학의 개념 및 발달과 최근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노년학은 광범위한 학문으로 노화의 생물적·심리적·사회적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노년학이 비록 최신의 학문이라 할지라도 발달심리학의 분야 중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하위분야이기도 하다. 연구의 발달은 그 기원이 노화과정에 관한 생물적 연구와 인간의 발달심리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데 발달과정으로 노화를 설명한 첫번째 과학자

는 19세기 벨기에의 Quetlet였으며, 노화에 관한 첫 번째 실험실 연구는 러시아의 Pavlov와 그의 연구원들에 의해 1920년대에 시도되었다. 또한 1922년에는 심리학자인 Hall이 노화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에 관한 저서를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출판했는데 노년학의 고전으로 그 원문이 남아 있다. 최근의 연구동향은 1920~30대를 시발점으로 하여 2차대전이 끝날 때까지 노화과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커져 갔으며, 2차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반적인 의학연구의 활성화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년학 연구는 1950~60년대를 거치면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노년학은 1945년에 미국심리학회에 한 분과가 되었고 1946년에는 노년학 전문지가 출판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연구동향은 1978년에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연1~2회의 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1980년부터 매년 1회씩 전문학술지 「한국노년학」을 간행하고 있다. 그리고 1981년에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경로원장」이 공포되었으며 1982년은 UN이 선포한 「세계 노인의 해」로서 이에 대한 결산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으며 그 외에도 몇몇 연구소나 국내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오고 있다.

둘째, 노년기의 성격발달을 설명하는 Jung, Erikson, Butler, Peck, Levinson의 이론을 중심으로 접근하는데;

Jung의 정신분석 이론은 의식과 자아발달에 있어서 단계를 강조하고 인간의 성격구조에서 원형과 양면성을 기술하여, 노화됨으로써 사람들은 반대되는 성과 비슷한 심리적 특질을 가지게 된다 하였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이론은 노년기의 조화로운 성격발달의 핵심이 자아통합대 절망으로 알려진 심리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시사했다. Butler의 생의 회고이론은 이 단계를 생의 회고단계로 언급하고 죽음에 직면하여 생을 회고하는 과정

으로 묘사했으며 이와같은 생의 회고는 정체감을 주고 그리고 연속성과 지혜를 갖게 한다고 주장하여 노인의 성격발달에 중요하다 하였다. Peck의 세가지 위기이론은 노인들의 건강한 성격발달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세가지 위기를 강조했고, 이 위기의 성공적 해결은 일, 신체적 안녕, 자기 그리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통한 실존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 진다 했다. 이 세가지 위기는 1) 자아변별 대 역할몰입, 2) 신체초월 대 신체몰입, 3) 자아초월 대 자아몰입이다. Levinson의 인생계절론은 신체적 변화와 성격과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노인들의 과제는 성인후기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속에서 그들의 젊음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발달과업은 특별히 자아를 잘 알고 사랑하며 그래서 마침내 자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노년기의 성격발달에 관한 요약된 결론은 생애발달 심리학의 일부로서 노인 성격발달의 작은 율리가 될 수 있으며, 한국을 중심으로한 사회의 노인복지 및 개인의 안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계삼(1982). "한국의 노인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동일(1980). "농촌노인의 사회심리적 특성: 아노미, 소외의식 및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의 분석." 「한국노년학」, 1, 67-74.
 김상규(1976). 「노인복지의 체계적 연구」. 대구: 경북대출판부.
 김성순(1979). 「노인 복지론」. 서울: 이우출판사.
 김인자(편역)(1984).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태현(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계간(1989). 「노인문제와 대책」. 서울: 이우출판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4). 「산업사회와 정년」.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84). 「노인문제와 노인교육」.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윤종주(1980). "우리나라 노년인구에 관한 사회인구학적 고찰." 서울여자대학 논문집, 154.
 _____(1982). "노인부양에 관한연구." 「한국 사회학」, 16, 155-179.
 _____(1983). "우리나라 노인문제에 대한 인구학적 고찰."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73-96.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윤진·조석미(1980). "가족 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 노년학」, 1, 75-85.
 _____(1982). "「경산노화사실인지척도」의 구성 연구." 「한국 노년학」, 2, 5-15
 최신태(1975). 「사회변환과 한국가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구조」. 서울: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2). 「핵가족화와 노년복지」.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한창영(1979). 「한국 노인복지의 행정과 법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현두일(1975)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AARP)(1986). A profile of older Americans. Brochure. Washington, DC: Author.
 Birren, J.E.(1961). A brief history of the psychology of aging. *The Gerontologist*, 1, 69-77, 127-134.
 Birren, J.E. & Clayton, V.(1975). History of gerontology. In D. S. Woodruff & J.E. Birren(Eds.), *Aging: Scientific perspectives and social issues*. New York: Van Nostrand Co.
 Butler, R.N.(1968).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 reminiscence in the aged. In B.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Press.
- _____ (1983). An overview of research on aging and the status of gerontology today. *Milbank Memorial Fund Q. Health and Society*, 61(3), 351-361.
- Butler, R.N. & Lewis, M.(1981). *Aging and mental health*. St. Louis: C.V. Mosby.
- Elias, M.F., Elias, P.K., & Elias, J.W.(1977). *Basic Processes in adult developmental Psychology*. St. Louis: C. V. Mosby.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2d ed.). New York: W. W. Norton.
- _____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A review*. New York: W. W. Norton.
- _____ (1985).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Hall, G.S.(1922). *Senescence: The last half of life*. New York: Appleton.
- Hooyman, N. R. & Kiyak, H.A.(1988).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Allyn & Bacon, Inc.
- Horn, J.C., & Meer, J.(1987). The vintage years. *Psychology today*, 21(5), 76-90.
- Jung, C.G.(1933).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San Diego: Harcourt Brace & World.
- _____ (1959). Concerning the archetyp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anima concept. In C.G. Jung., *Collected work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9, Part 1.
- Levinson, D.(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Ballantine.
- _____ (1980). Conceptions of the adult life course. In N. Smelser & E. Erikson(Eds), *Themes of work and love in adulthoo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Neugarten, B.(1968). Adult personality: Toward a psychology of the life cycle. In B.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eugarten, B., & Neugarten, D. A. (1987). The changing meanings of age. *Psychology Today*, 21(5), 29-33.
- Papalia, D. E., & Olds, S. W.(1989). *Human development* (4th ed.) New York: McGraw Hill Book Company.
- Peck, R.C.(1955).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J.E. Anderson(Ed.), *psychological aspects of aging*.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_____ (1968). Psychological developments in the second half of life. In B. 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rner, J. S. & Helms, D. B. (1987). *Lifespan development*(3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Inc.
- U. S. Bureau of the Census(1983). *America in transition: An aging society*(Current Population Reports, Series P. 23, No. 128).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Woodruff, D.(1975). Introduction: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s of aging. In D. Woodruff & J. Birren (Eds.), *Aging: Scientific perspectives and social issues*. New York: Van Nostrand.

Personality Developments of Late Adulthood

Nam Soon Kim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n aging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n personality developments or late adulthood.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erized as follows:

1. The study of the aged and the aging process was known as gerontology. Gerontology was the multidisciplinary field, the study of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aspects of aging.

Gerontology, although a recent discipline, was nonetheless one of the most active subfields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nd gerontology has its roots in biological studies of the aging processes and in the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2. Personality theories concerning the late adulthood were developed by C.G. Jung, Erik Erikson, Robert Butler, Robert Peck and Daniel Levinson. Jung emphasized the growth of personality across the life span. Jung's model focused on the individual's confrontation with death in late adulthood. Also, he described a decrease in sex-typed behavior with aging. Erikson believed the key to harmonious personality growth was the successful resolution of the psychosocial crisis known as integrity versus despair. Peck provided a detailed account of three adjustments required by individuals in their late adulthood, referred to as ego differentiation versus work-role preoccupation, body transcendence versus body preoccupation, and ego transcendence versus ego preoccupation. Butler's concept of the life review proposed that the elderly reminisce about the past as death draws near.

Levinson maintained that old age was initiated by a transitional period. The aged person had to define the self in terms of retirement, decreasing physical capacities, and impending death.